

## 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신적인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래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외출을 삼가해야 한다. 그런 후 사태가 진정되면 기분 전환을 위해 외출을 해도 좋을 것이다. 기분 전환을 위해 외출하고 싶을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럴 때는 "Let's go out for a change!"라고 말하면 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 한 문장을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다.

1. 그것을 나에게 팩스로 보내라!

Fax it to me.

2. 그 남자를 찾아라!

Find him.

3. 문을 잡아당겨라!

Pull the door.

4. 지금 그녀에게 얘기를 해라!

Talk to her now.

5. 기분 전환하러 나가자!

Let's go out for a change.

6. 마음을 정해라!

Make up your mind.

7. 사무실에 들러라!

Stop by / drop by / come by my office.

8. 그를 불러주세요!

Call him.

9. 물을 마셔라!

Drink some water.

10. 재미있게 놀러 나가자!

Let's go out for fun.

➔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 LPGA 출신원 기록 ... 장하나 사상 첫 파4 출신원

한국여자프로골퍼 중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가장 많은 우승(25승)을 거둔 박세리(43)는 공식 대회에서 딱 한 번 출신원을 기록했다. 1998년 US오픈에서 '맨발의 우승' 신화를 쓴 뒤 10년을 기념이라도 하듯 2008년 캐나다 오타와현트글프클럽(파72)에서 열린 LPGA투어 캐나다여자오픈 3라운드 5번홀(파3·178야드)에서 6번 아이언으로 티샷한 공이 그린에 떨어진 뒤 5m를 굴러가 갯대에 맞고는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LPGA 유일한 출신원을 작성하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박세리는 나은 편이다. 두 번째로 많은 승수(20승)를 쌓은 박인비(32)는 여전히 날카로운 샷을 과시하고 있지만 LPGA 무대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짜릿한 '에이스의 손맛' 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주말골퍼가 출신원을 할 확률은 통상 1만2,000분의 1로 알려져 있다. 프로골퍼가 출신원을 할 확률은 주말골퍼 확률보다 4배 높은 3,000분의 1로 통용된다. 아무리 출신원에 운이 따르고 해도 실력이 없다면 그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비슷한 기량을 갖고 있는 프로골퍼 사이에서는 출신원이 '기량' 보다 '운'에 더 좌우되는 경향이 짙은 모양이다. 출신원을 잘하는 프로골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통계가 보여준다.

LPGA에 진출한 한국여자골퍼 중 가장 많은 출신원을 달성한 선수는 7승을 거둔 김인경(32)이다. 2007년 첫 출신원을 기록한 김인경은 2010년, 2013년, 2017년 등 3~4

년 간격으로 출신원을 잡아 총 4개를 기록하고 있다.

LPGA 출신원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1992년 이래 총 620개의 출신원이 나왔다. 지금은 은퇴한 18승의 맥 앨런(미국)이 9시즌 동안 8개를 기록해 최다 출신원 주인공이 됐고, 5개 이상 출신원을 작성한 선수는 앨런을 포함해 총 10명에 이른다. 유명 선수를 보자면 카리 웹(호주)이 6개, 브리트니 린시컴(미국)이 5개를 기록했다. 김인경은 이들에 이어 커리어 출신원 순위로는 공동 11위에 올라 있다. 한국여자골퍼들이 기록한 출신원 총 개수는 전체 출신원(620개)의 9%인 57개다. 승률 50%에 도전하는 한국여자골퍼로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출신원 숫자는 아니다. 상위권 선수는 압도적으로 많지만 전체 숫자로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온 미약한 수치일 수 있다.

출신원 3개를 기록한 한국 선수는 모두 7명이다. 이들 중 이미향이나 지은희는 여전히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어 출신원을 더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은퇴한 '슈퍼땅콩' 김미현이 짧은 비거리에도 출신원을 3개나 기록한 것이 이채롭다. 슬럼프에 허덕이고 있는 최나연은 전성기 때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출신원을 잡은 특별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출신원 2개를 기록한 한국여자골퍼는 총 9명이다. 이들 중 장하나는 LPGA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출신원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2016년 1월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 3라운드 때 LPGA 사상 처음으로 '파4출 출신원'을 작성한 것이다.

## 올림픽 연기 비용 놓고 일-IOC 신경전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 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 연기 비용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있다.

지난 22일 OSEN이 일본 '스포츠 호치'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7월-8월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사태로 2021년으로 연기되면서 최소 3,000억 엔(약 28억 달러)에서 최대 4,000억 엔(약 37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OC는 전날 추가 비용과 관련해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직접 올림픽 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합의했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IOC의 발표 내용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아베 정부는 "아직 논의 중이지 아직 합의한 사실은 없다."라고 부인했다. 일본 정부의 강한 부정에 IOC는 결국 홈페이지에 올렸던 합의 사항을 지우고 "IOC와 일본 정부가 계속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정정했다.

IOC와 아베 정부가 벌인 신경전에도 연기 비용을 일본의 부담이 될 확률이 크다. 바로 기존 계약서에 연거나 추가에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개최국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도쿄 올림픽 유치 계약서에 따르면 '중단'이 아닌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모두 개최지가 부담해야 된다. 개최지 도쿄도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아베 정부가 자국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조삼모사식의 존극을 벌였을 확률이 높다. 올림픽 취소 대신 연기를 택한 것이 아베 총리인 만큼 책임도 일본이 져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아베 신조 정권을 향한 지지도는 급락했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 정권이 정권 선전을 위한 올림픽에 치중하며 코로나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 이광연공인회계사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
- IRA'S IRA Rollover
-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 감사대행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